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2. 여름호 (제9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인 쇠 : 2002년 7월 30일
 발 행 : 2002년 7월 31일
 발행인 : 유 영 후
 편집인 : 황 공 용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기획, 인쇄 : 유천문화사
 (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전 화 : (02)2263-1901(대)
 전 화 : 565-1700 팩 스 : (02) 2263-1905
 팩 스 : 564-1701 E-mail:YC1905@chollian.net
 E-mail:capa21@hananet.net

CONTENTS

CONTENTS

시론 / 의약분업 2년, 우리의 태도 · 3

프로필 / 6·13 지방선거 약대 동문 당선자 · 4

동문회소식 / 회장단회의 · 5

회장단과 총동창회장 좌담회 · 5

감국회 모임 · 5

2002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 6

수상자 명단 · 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발족하며 · 9

약학대학 발전 기금조성위원회 출범식 · 10

여동문회소식 / 여동문회 그 유별난 모교사랑에 대하여 · 12

동기회동정 / 1회 / 일회 동문 여러분께 · 13

12회 / 人脈의 보고 12회 동기회 · 14

특별기고 / 정년을 맞으며... · 16

만평 / 돌아오지 않는 주행 · 17

약국도움이야기 / 효율적인 복약지도와 실례 · 18

별난동문 이야기 / 지금 북녘에선 동포애와 동료애를 기다립니다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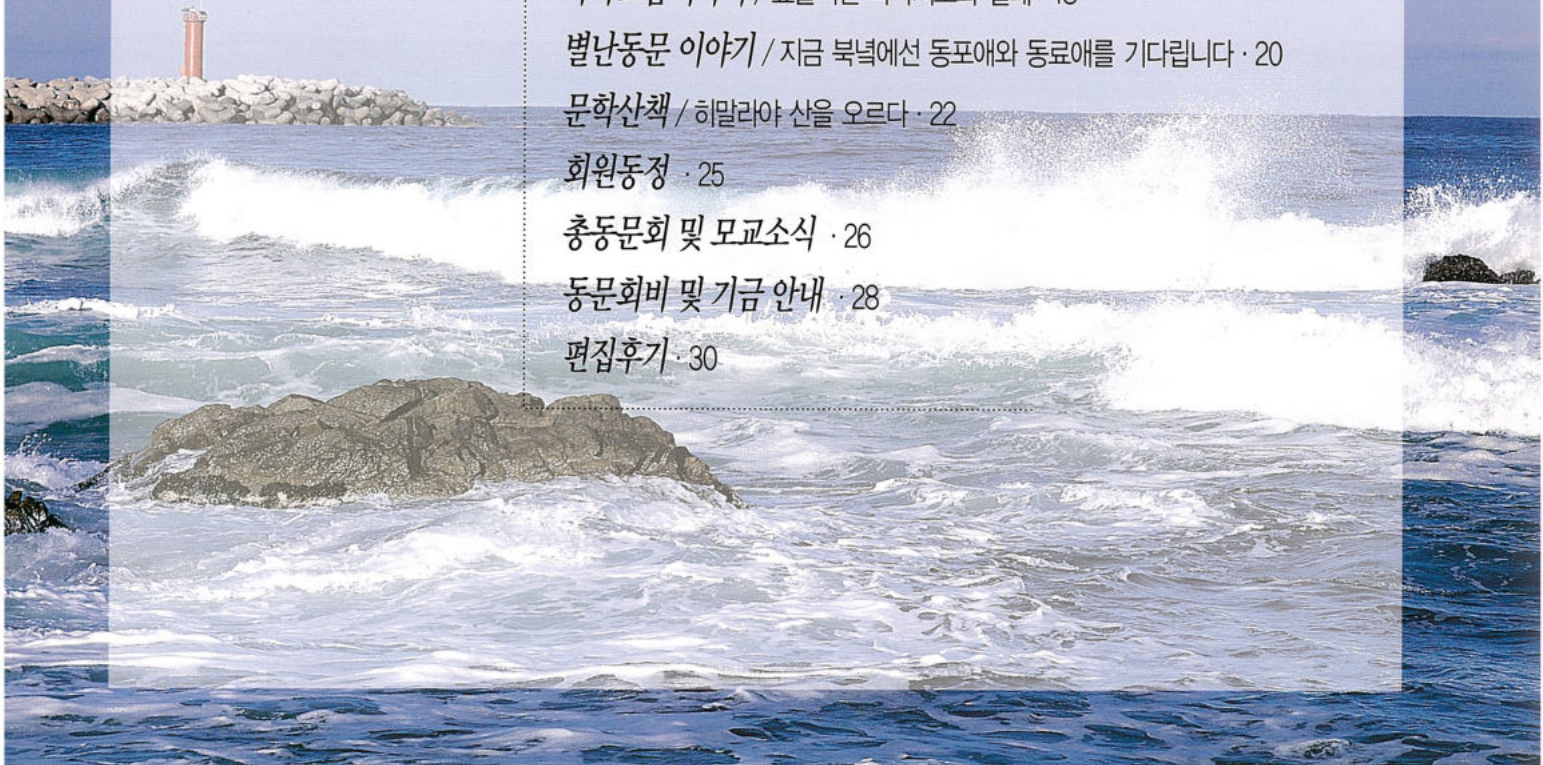
문학산책 /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 · 22

회원동정 · 25

총동문회 및 모교소식 · 26

동문회비 및 기금 안내 · 28

편집후기 · 30



의약분업 2년, 우리의 태도

2002년 7월은 여러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점이 됐다. 지난 6월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른 신화적인 일이 벌어지고, 지방선거는 매번 하나의 당에 치우치는 싸움이 식으로 끝났다. 또한 누구도 이해 못하고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 북한이 서해교전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국민을 또 한번 경악케 만든 사건도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예술적인 축구를 구사한다는 프랑스에 5대 0이라는 점수차로 패배를 맛보았고, 또 다른 축구감독들처럼 히딩크감독도 교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때 히딩크는 곳곳이 그것을 이겨냈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해내겠다고 했던 것이다.

이제 세상은 그의 말을 이해하였고, 나아가서 그를 믿게 되었다. 또 그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이 일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그런 히딩크를 믿고 맡겨서 끝까지 해내게 했던 국내 축구 관계자 모두에게도 찬사를 보내는 마음이다.

한편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의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정부는 의·약의 역할분담을 통해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며, 건강증진을 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여 누구에게나 의료혜택을 받게 해야 하는 의약분업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할 때이고, 의사들도 의원 등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 처방전 오기-처방



김 승 태
(15회, 부회장)

약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빌미를 줘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누구나 투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투쟁한다고 하기 보다는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전에는 의사의 치료목적이 입력이 잘 되고, 출력되어 전달되었는지. 또한 직원, 전체적인 운영 등) 그리고 제약업계, 도매업계, 그리고 한의업계들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가운데 약업계는 어떠한가. 의약분업이 시작된지 어언 2년이 된 것이다. 정말로 돌이켜볼 때라고 생각된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끝이 없어 보이는 표준소매가격 표시문제는 약국들 간의 새로운 경쟁의 양상으로 처방전을 많이 유치하며,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난매가 횡행하고, 일반의약품 판매문제 물론 이 문제에는 약사의 전문업무를 도와주는 비약사들의 문제도 있을 줄 알고 있다.

이제 약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빌미를 줘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누구나 투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투쟁한다고 하기 보다는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나 의료계가 약사를 빌미로 하는 이야기가 되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의약분업 2년을 바라보면서 히딩크가 했던대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의약분업 2년의 이 무더위와 장마를 맞이하면서 '남의 얼굴에 흠을 묻히려면 나의 손에 먼저 흠을 묻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 약대 동문 당선자



〈기초단체장〉

경북성주 군수

이창우 (4회)

- 경북 성주군
- 제일약국
- 전 광역의회의원
- 한나라당



〈광역의회 의원〉

강원도의회의원

지성배 (14회)

- 강원도 춘천시
- 비개국
- 현 강원도지부장
- 한나라당



〈광역의회 의원〉

대구광역시의회의원

박주영 (16회)

- 대구 서구
- 서울약국
- 분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기초의회 의원〉

경북상주시의회의원

신현수 (6회)

- 경북 상주시
- 대성약국
- 기초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서울은평구의회의원

임상목 (8회, 부회장)

- 서울 은평구
- 세계로약국
- 은평분회 감사
- 한나라당 수석부위원장

회장단 회의



〈일 시〉 6월 15일(土) 오후 6시 동문회관

〈토의사항〉

1. 회원명부 배포상황 설명의 건
 - 5년마다 제작하는 회원명부가 2002년도 5월에 제작완료, 국내(4천여명) 및 해외(2백여명)에 발송되었으며 주소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 약학대학 발전기금 조성위원회의 건
 - 최영욱 학장과 황완균 학부장이 발전기금 모금의 필요성 설명.
 - 위원장은 유영후 동문회장, 최영욱 모교학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은 약 100여명으로 결성하되 동문회장단, 동기회장, 시·도지부회장, 교수, 고문, 제약회사 대표 등 100여명 전후로 결성하고 실행위원

은 10여명으로 한다.

- 동문들은 등록금 1학기(3백만원) 더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3. 기타 토의사항

- 최종이사회는 약학대학 발전기금 조성위원회 발족행사를 겸해서 7월 17일(제헌절) 오후 6시에 모교 교수식당에서 개최한다.

회장단과 총동창회장 좌담회



〈일 시〉 7월 11일 국민일보사

〈참석자〉

유영후 회장, 서청원 총동창회장(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이양현, 임상묵, 조의환, 김연희, 이규진, 박호일, 유정사, 황공용, 강옥희, 이호섭, 서국진, 문재빈, 안병식, 정명진, 이경옥, 김수배

감국회 모임



〈일 시〉 7월 3일 세종호텔

〈토의사항〉

1. 초도이사회의 건
 - 7월 17일(오후 6시 모교 교수식당)

2. 약학대학 발전기금 조성 위원회의 건

- 박명자, 신정숙, 문옥자, 김미담, 김희식, 김영희 부회장이 약학대학 발전기금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1,550만원을 약정하였다. 향후 여동문회가 앞장서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

강옥희, 정덕화, 김석자, 우정희, 박명자, 신정숙, 박숙자, 정조원, 최춘자, 김연희, 문옥자, 김미자, 엄계숙, 오영지, 이경옥, 김미담, 양덕숙, 김희식, 김영희



2002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지난 5월 25일 서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02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정기총회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여명의 동문들을 중심으로 유영후 회장 주재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각종 현안 보고에 이어 박영규 감사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고, 특히 최근 잇따른 동문회 지부 결성 등의 고무적인 소식과 함께 모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열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회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 후배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회무를 이끌어가자는 전향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모교 서청원 총동창회장이 참석, 축사를 했으며, 최영욱 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및 한덕룡, 김일혁, 손동헌 명예교수님이 직접 참석하여 후학들을 격려해 주셨고, 타 약대 동문회 임원들(서울대, 이대 개국/비개국, 숙대 개국/비개국, 덕성 비개국, 동덕, 조선)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총동창회, 서울시약, 서울대, 성균관대, 충북대, 한미약품, 삼진제약, 온누리 건강에서 축하화환을 보내주었다.



유영후 회장 인사

“약업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동문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어려울 때 힘을 합치는 동문회가 될 것을 믿는다. 최근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척 고무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양시, 시흥시, 천안시 등의 지부 창립에 이어 최근 방문한 안산시지부에서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를 계기로 모교발전기금조성위원회 발족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영욱 약대학장 축사

“현재 16명의 교수가 재직 중인바, 젊은 교수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의욕이 넘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박명수 총장의 각별한 배려로 약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약대 발전의 내외적인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우리 중앙약대 개교 50주년을 모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약학관 신축 등을 비롯 교육연구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들이 앞장선다는 각오로 교수 1인당 500만원씩의 발전기금을 각출하기로 결의하고 전체적으로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전체 교수들이 흔쾌히 동의했음을 밝혀둔다. 모교의 발전은 동문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그 근간이 되는바 적극적으로 활발한 지원을 기대한다.”



감사보고 : 박영규 감사

“현 집행부가 동문회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감사한다. 현 임기 개시 시점에서 3억 2천만원이던 장학기금에 6천만원이 더해져 현재 3억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임기내 4억원 돌파를 확신한다. 보다 중요한 점은 외부의 찬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회비 및 기금으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부도 38개에서 최근 41개로 확대되었으며, 발전의 밑거름이 될 회원명부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곧 전 회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동문회보가 개국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비개국 회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은 물론 특히 해외거주 동문들에게 모교사랑의 마음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에 350여명의 비개국 회원이 전례 없이 일반회비를 납부하였고, 그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음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수상자명단

● 총동창회장 공로패

- 임상묵(8회) · 세계로약국
- 최영덕(15회) · 백제약국



● 학장 감사패

- 박기배(20회) · 일산메디칼약국



● 학장 공로패

- 김태일(22회) · 온누리신라약국



● 동문회장 감사패

- 천흥기(4회, 동기회장)
- 정승환(정외 15회) · 한불제약 대표이사



● 동문회장 공로패

- 임완호(6회) · 풍전약품 대표이사
- 강응모(18회) · 대호약국
- 정찬현(20회) · 그린프라자약국
- 강희윤(22회) · 맑은샘약국
- 이범도(24회) · 온누리한일약국
- 양덕숙(28회) · 서광타워약국



1. 최영덕(15회)
2. 박기배(20회)
3. 천흥기(4회)
4. 정승환(15회)
5. 임완호(6회)
6. 강응모(18회)
7. 강희윤(22회)
8. 이범도(24회)
9. 양덕숙(28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발족하며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여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약업계 현실 속에서 약사의 직능과 본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문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간 모교의 발전



을 위해 여러 모로 애써 주신 데에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세기의 역사와 전통 속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6천여 동문을 배출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약학교육의 요람으로서 명문사학의 위상을 확고히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초일류를 향한 도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 특히 내년이면 우리 약학대학의 개교 5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전통의 명문 우리 모교를 다시 한번 도약시켜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교의 노후한 건물과 열악한 교육·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당국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나,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기다리보다는 능동적인 우리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대학당국의 발전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학교에서는 교수와 재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

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 회장단 회의를 거쳐 발전기금조성위원 명단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7월 17일에 출범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발전기금조성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한동지 사업입니다. 모교의 발전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 던지고 나부터 솔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모두의 정성을 모으고자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모교 사랑은 이제 생각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약대 사랑의 실천입니다." 초일류를 향한 도전의 활시위를 다함께 당깁시다. 이제 동문 여러분께서는 발전기금 조성 안내 팸플릿을 받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발전기금조성의 취지를 심분 이해하시어, 자발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해 주시고, 주변의 동기나 선·후배에게도 적극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격려에 우리 약학대학의 미래가 달려있으며 전 동문과 교수, 재학생이 하나가 되어 내 손으로 벽돌 한 장을 쌓는다는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을 때에 약학대학의 재건이 비로소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02년 7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공동위원장 유 영 후 (동문회장), 최 영 욱 (약대학장)

중앙대학교 약학대

일시: 2002년 11월 17일(수)



약학대학 발전

- 내년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약학대학은 최근 많은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약학대학 50년사" 편찬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2003년 10월 개교기념일을 전후하여 기념 학술행사 등 전통 동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장을 준비중에 있다.

- 특히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촉발된 약학대학 발전기금조성은 동문회와 연계하여 발전기금조성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출범식은 지난 7월 17일 거행되었으며, 총 76명의 내빈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회의 이사회를 겸하여 진행되었다. 동문회장의 위원장 인사가 있는 뒤, 중앙대 총장의 치사와 자문위원을 대표하여 김일혁 약대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사회에서는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2002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있었다. 이후에는 약대학장이 발전기금의 조성 플랜과 기금의 활용 등에 관한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출범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조성위원을 대표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식에 참석한 인사 모두가 자유롭게 조성위원회와 발전안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출범식을 마쳤다. 특히 이날 출범식은 약학대학이 중앙대의 18개 단과대학 중 최초로 자체 발전안을 공식화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1회부터 46회까지의 동문뿐 아니라 발전기금 조성에 동참한 전·현직교수, 학생회 학생들까지 참여함으로써 한동지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중앙대 총장을 비롯하여 법인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본부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약학대학의 발전계획안에 중앙대의 전교적 관심이 주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발전기금조성의 의의

-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 발전기금조성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한동지 사업입니다.
- 기수별, 지역별 공동체로서의 동문의식을 한층 강화시켜 줍니다.

발전기금조성위원회 발족 추진 경위

- 5월 초순: 교수들의 자발적 기금조성으로 동기부여
- 5월 중순 : 일부 동문회 지부의 적극적인 발전기금 기부 참여
- 5. 25. :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발족키로 결의
- 6. 15. : 동문회장단의 기금납부로 기금조성운동 활성화
- 6. 27. : 학생들의 자율예산 전환 적립으로 명분 강화
- 7. 17. :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출범식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기구 및 위원 구성

- 공동 위원장: 약학대학장/ 동문회장
- 자문위원: 역대학장, 역대 동문회장/여동문회장, 국회의원, 약사회회장 등



기금조성위원회 출범식

- 위원 · 당연직 : 전현직 교수, 역대 동문회 임원, 시도지부장, 기수별 대표
- 추 대 : 개국동문 및 비개국 직역별 대표 100 여명

향후 추진전략

- 조성위원의 우선적 참여 독려
- 기수별 대표, 지역별/직역별로 위원을 분담하여 활동 강화
- 팸플렛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발전기금조성 내역을 분기별로 결산
- 기부자 명단 및 금액을 동문회보에 게재(일정지면 할애)

발전기금 조성 내역

- 현재까지 총 3억 6천 6백 5십 만원이 약정되었음
- 모교교수진 : 자발적인 약정서 제출(총액 9,700만원) 최영욱(학장) 1,000만원, 임철부(약식원장) 1,000만원, 염정록(전임학장) 700만원, 김기호(명예교수) 500만원, 허인회, 김창중, 김미영, 이도익, 이민원, 임채욱, 김대경, 황완균, 김하형, 김홍진, 심상수, 손의동, 천영진 교수 각 500만원
- 학생 : 자율예산 5,350만원을 기금으로 전환적립(전체 학생의 참여)



고 두 훈 (2회)



이 해 석 (5회)

- 동문회 회장단 (총 12,400만원)
 - 유영후(회장) 1,000만원,
 - 500만원 : 정재일, 이기안, 박숙자, 조의환, 김연희, 이규진, 박호일, 유정사, 정덕호, 황공용, 황문상, 강옥희, 서국진, 윤대봉, 박석동, 정명진, 김경오, 김현태 부회장
 - 400만원 : 김종성, 김승태, 김수배 부회장
 - 300만원 : 이호섭, 박계환, 이경옥, 김영식 부회장
- 동문회 지부 등 (총 6,200만원) :
 - 안산시지부 5,000만원 (이범도(24회) 300만원, 안산79학번 동기회 2,000만원 포함)
 - 고양시지부 400만원
 - 천안시지부 500만원(최옥출(11회) 100만원포함), 91학번 동기회 300만원
- 개인 후원 (총 3,000만원) :
 - 고두훈(2회)/박명자(5회)부부 600만원
 - 이해석(5회)/강태일(5회)부부 1,000만원
 - 윤규형(24회) 500만원,
 - 이내홍(25회) 300만원,
 - 김영희(28회) 300만원
 - 한국약품(이병두, 40회) 300만원,



여동문회 그 유별난 모교사랑에 대하여



엄계숙
(13회, 수석부회장)

의약분업 이후 약국 저마다의 사정이 제각각이라 각종 모임도 오밤중에 모이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더러는 지지부진 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중대약대 여동문회 모임은 예외이다. 이달 모임만 해도 그렇다. 예약된 좌석이 모자라 보조 의자를 동원하는 등 시작부터 활기가 넘쳤다.

문옥자 선배님의 선창으로 “중~대약대 짹짹 짹짹” 월드컵 응원을 방불케하는 열띤 분위기로 시작된 그날 모임의 주제는 모교사랑-파이퍼홀 재건축기금 모금에 관한 거였다.

요즈막의 약국 사정 이야 대부분 그리 썩 좋은 편도 아니련만 누구하나 이론을 제기하거나 토를 다는 회원 없이 한 회원당 300만원 이상씩 쾌척 하기로 일사천리로 결정을 보았다.

어느 남자인들 이렇게 배짱 좋게 화끈할 것인가?

300만원 이라는 액수의 논리는

한학기 등록금을 더내겠다는 단순 논리인데 자발적으로 모두 동참하겠다고 하시니 언제나처럼 화기애애 할 수 밖에...

이어서 문옥자 선배님의 경락강의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회계 담당 오영지 동기(일명 일수아지매)는 장부들고 열심히 돌아 다니며 회비를 100% 완납시키는데 그 노하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 모든 회원이 수치박음에 놀라워 한다.

이제는 노래연습시간인데 하필이면 어렵기 짝이 없는 Titanic OST “My heart will go on” 이다보니 작년부터 연습했어도 아직도 셀린 디온이 들으면 한숨쉬게 생겼다. 그래도 모든 회원은 즐겁다. 어려움에도 전하고 계속 upgrade 되어가니깐... ㅎㅎㅎ!

예약된 시간땀에 노래연습은 아쉽게 접고 또다시 이야기는 우리의 청춘이, 낭만이, 추억이 서리서리 간직되어 있는 파이퍼홀로 되돌아가 기금조성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원로 회원님들의 당부의 결의로 그날 회의 끝이 선포되었는데....

언제나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 여동문들은 뛰어나며, 슬기로우며, 그릇의 크기 또한 대단하다는 것! 그러니 모교사랑의 크기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다음 모임이 기다려진다.

우리 여동문들께서 더 많이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일회 동문 여러분께!



홍 홍 만
(1회, 동기회장)

초하의 날씨에 건강 하시은지요?
지난 5월 15일 전주 모임에 많은 동문이 참석하시어, 기쁨의 회동을 하였습니다. 전북동문 7명 전원과 서울에서 온 13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중 여자 동문이 4명이 참석하였으며, 졸업 후 처음 만나는 동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전주에 계시는 동문들이 우리 모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김성운 동문께서 ₩300,000원을 찬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춘"이란 시까지 써 주시어 우리를 감격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 후에는 전주시내 관광을 하고 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참석자 : 공희택, 김기홍, 김기홍, 김성운, 김순일, 김순정, 김영규, 김운삼, 노성현, 박학진, 손동현, 안영희, 오유진, 이용중, 이한두, 정 레, 조덕열, 최완범, 한영옥, 홍광만(20명)

青春

金聲尹

몸은 늙어 退行이라
걸기도 힘겨웁다.

흰머리 넓은 이마
검버섯이 加勢하니
옛모습 아련한데
山川도 變했구나

70星霜 코 앞인데
明水臺 藥學時節
몽계구름 피어나듯
우리 모두 靑春이여라

第1回 同窓會 全州 모임에서



人脈의 보고 12회 동기회



이 호 섭
(12회, 동기회장)

1964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하던 것이 엇 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한지34년이 흘렀다. 애초부터 우리 12회 동기회는 뭉성부른 잎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전국 각지 어느 곳엘 가도 지역 지도자로 변신한 동기들을 만나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이다. 우리 동기들은 졸업 후 64동기회란 이름으로 박영찬 동기가 첫 회장을 맡았고, 그 후 20주년 회장엔 조택상, 그리고 30주년 회장엔 김일권 동기가 맡아 수고했으며, 부산의 64회, 인천지역 동기들의 모임인 녁쿨회,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인 예중회(회장 민명임)와 20여명이 모여있는 청우회 등 소그룹 활동도 활발하다.

동기들의 활동상도 다양하다.

먼저 약사회에 봉사하는 동기로는 경기도 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약사공론 부주간으로 있는 김구, 현 경기도 약사회장인 최병호를 비롯 노석준(강원도 약사회장), 김상철(전라북도 약사회장), 노덕재(강서구 약사회장), 이호섭(구로구 약사회장), 김대건(밀양시 약사회장), 송두금(서귀포 약사회장), 최덕구(구리시 약사회장) 동기 등 약사회무를 맡았던 동기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최덕구 동기와 송두금 동기는 각각 경기도 의회와 제주시 의회에 진출한 정치 입문생이기도 하다.

약사신협에 앞장선 동기로는 서울약사신협 이사장을 무려 10여년간 맡았던 조택상 동기와 현 부산동문회 회장과 부산약사신협 이사장을 맡고있는 남기탁, 그리고 이효훈

(남부약사신협 이사장), 이관하(마포약사신협 이사장) 동기 등이 있다.

관계에도 동기들의 활약이 활발한데 최초로 여약사 보건소장에 임명된 이순우(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장 역임), 박흥식(부산 중구 보건소장), 오랫동안 검찰청에서 보건범죄 수사팀으로 일하고 있는 정영수, 문혜성(서울시 환경보건 연구원) 동기 등이 있다.

그밖에 학계로는 김정



희(원광대학 교수),
 염윤기(순천향 의과
 대학 교수) 동기가
 있고 병원계통엔 김
 일영(마산삼성병원
 약제부장) 동기가
 있다.



그밖에 팔방미인
 인 강옥희 동기가 약학대학 여자동
 문회 회장을 맡고 있어 동문회와 우
 리 동기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
 다.

계약업계로 진출했던 동기들은
 수없이 많지만 다 열거할 수는 없
 고, 최근까지 수고한 동기들을 보면
 꺾진한(동아오츠카 생산전무이사),
 김동성(건일약품 전무 역임), 김일
 권(일동제약 상무 역임), 김정박(사
 노피신데라보 코리아 상무), 김찬구
 (초당약품 부사장), 이성우(삼진제
 약 대표이사), 정재균(동구약품 전
 무 역임) 등이 있으며, 신계철 동기는
 특이하게도 부곡의 원당고운호
 텔 대표로 있다.

외국에 진출한 동기들도 많은데
 고송준(브라질), 피현(뉴질랜드), 김
 병주와 황명선(캐나다), 임인빈(괌)
 을 비롯 강경식, 김영숙, 김옥희, 라
 정애, 박태민, 우종수, 이정옥, 임옥
 희, 장혜란, 조완제, 최옥순 동기가
 미국을 위시해서 세계속에 퍼져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박윤희, 김화
 영, 서광우, 백영규, 장종근, 진영숙

동기들은 他界함으로서 더 이상 만
 나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우리 동기들
 도 거의 환갑을 맞이하게 되며, 또
 몇 년이 흐르면 졸업 40주년도 맞
 게 된다. 그때 동기들이 다시 만나
 흑석동에서 청년시절을 회고하며
 회포를 나누기를 기대해본다.

정정합니다!!

회원명부 36p는 하기와 같이 정정합니다.

- ▶ 김기동(3회) 동문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451 한신A 7동 301호
 전화 : 02-952-9825, 016-291-9825
 작고자 명단에 잘못 기재(작고자 아님)
- ▶ 고성모(12회) 동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한아름 아파트
 106동 402호
 전화 : 02-451-9109
 작고자 명단에 잘못 기재(작고자 아님)
- ▶ 문장운(7회) 동문 7회인데 8회에 기재됨
- ▶ 전영표(14회) 동문 14회인데 13회에 기재됨
- ▶ 김재천(24회) 동문 24회인데 25회에 기재됨
- ▶ 이홍노(32회) 동문 32회인데 35회에 기재됨



김기동(3회)

정년을 맞으며...



김 기 호 (4회)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날 때가 없다.

정년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엇그제 같다.

세대차라는 흔한 말이 지금처럼 느껴 본 적도 없다. 붉은 악마의 단합된 대~한민국의 외치는 애국심도 처음으로 느껴봤다. 승리에 도취된 히딩크 신드롬도 새롭게 느껴진다.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의 주고 받는 대화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조바심까지 느껴진다. 때로는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유전자 변형곡식, 동물복지 및 인터넷 등은 못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희망도 주지만 공포와 심신의 피로 감도 주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GNP가 100불도 안되는 시기에 자랐다.

일정시대에 국민학교 다니다 해방됐고, 중학교때 6.25전쟁이 터졌으며, 어려운 시기에 대학을 마쳤다. 대학 졸업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모교인 약학대학에서 강사부터 시작하여 37년간을 몸 담았다.

일본인의 학대, 보리고개, 6.25참상, 4.19 와 5.16을 겪었고, 한때는 GNP가 만불 시대의 기쁨과 자부심도 맛 보았다.

요즘 의약분업 부작용으로 약사와 의사가 대립하고 있는 현상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인류 질병의 퇴치와 치료를 목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최고 지성인들이며 모든 국민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보기 흉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취질까 염려된다.

나는 제자들을 사랑한다. 아니 강의실을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강단에 서기만 하면 신들린 무당처럼 신이 나고,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강의만 하고나면 아픈 것도 사라졌다. 또 생기가 났다. 아마 젊은 제자들의 기를 받아서인가 보다.

나는 우리 동문들을 사랑한다. 우리 동문들의 활동과 협동심은 타 대학에서 부러워 하고 있고, 특히

정년기념여행 : 중국상해에서 약대교수 및 사모님들과 기념촬영





유영후 회장과 임원들이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마련에 힘을 기울인다는 희소식이 있다. 이들에게 온 동문

이 기를 모아주자.

그들에게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또 교수들을 사랑한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교육과 연구에 열중하고 있고, 또 최영욱 학장을 비롯해 재직교수 전원이 발전기금 모금에 솔선 수범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자랑스럽다.

끝으로 정년까지 지켜주신 중앙가족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두서없는 글을 맺는다.

나는 제자들을 사랑한다. 아니 강의실을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강단에 서기만 하면 신들린 무당처럼 신이 나고,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강의만 하고 나면 아픈 것도 사라졌다. 또 생기가 났다. 아마 젊은 제자들의 기를 받아서인가 보다.

만 평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효율적인 복약지도와 실례



최 병 철 (21회)

- 약학박사
-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 약사교육연구소 소장
- 미국약사회 및 임상약학회 정회원
- 한국임상약학회 상임이사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사에 대한 신뢰성이며 약사 직능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임상약학이라는 전문적인 학문적 배경은 성공적인 복약지도를 위한 기본이 되고 성공적인 약국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약사법 제22조 및 25조에서 '약사는 의약품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년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재한 조제 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자가 그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다'고 조제 기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는 약사에게 약물의 기전, 적응증, 금기, 용법·용량, 부작용 및 상호작용 등을 토대로 약물 처방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의미이다.

복약지도의 목적은 환자에게 투여할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 자신이 약물치료에 확신하고 긍정적으로 치료에 동참할 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약물치료를 통해 의료비 감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질병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있다.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환자가 임의로 치료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용량 및 횟수를 증가시켜 복용한다면 약물의 부작용 및 독성이 증가될 것이고, 환자가 임의로 약물을 중단한다면 약용량을 줄인다면 원하는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질병이 악화될 수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약지도의 불이행은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치료의 악순환을 가져와 결국 의료비 및 약제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한다면 환자의 질병 치료는 물론 보험재정에도 커다란 절약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약사의 직능을 향상시키고 환자와의 신뢰감을 증진시켜 치료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약사의 복약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복약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원칙을 명심하여야 한다. 첫번째, 약물 투여전 환자의 간, 신장에 여부, 알러지 여부, 특이체질, 병력, 약력 등을 검토하여 기초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두번째, 처방전에 자주 부작용 및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안전역이 좁은 약물, 금기약물, 과용량인 약물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번째, 복약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환자가 복약전, 복약시, 보관법, 복약후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할 부분을 머리 속에 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 복약지도를 실시할 때에는 다시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번째, 복약지도는 계속 같은 처방보다는 새로운 처방, 약물의 용량이 증가된 처방 및 약물이 추가된 처방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두번째, 복약지도는 환자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고 간단명료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세번째, 복약지도는 환자의 성별, 나이, 질병 상태에 따라 생생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약지도는 환자의 약사에 대한 신뢰성이며 약사 직능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임상약학이라는 전문적인 학문적 배경은 성공적인 복약지도를 위한 기본이 되고 성공적인 약국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급성 중이염 처방에 따른 복약지도

여름철 바캉스 시즌이 지난 어느날 오후, 엄마와 함께 5세의 소아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였다. 환자는 수영장에서 하루종일 보낸 후 몇일 후부터 귀가 막히는 듯 하고 통증이 심하고 귀에서 이물질이 흘러나와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받아왔다고 한다.

Rx

- ▶ Ceclor® syrup 25mg/ml 4ml tid
- ▶ Rhinathiol® syrup 50mg/ml 3ml tid
- ▶ Actifed® syrup 1ml(6mg/0.25mg) 3ml tid

질병해설

중이염은 급, 만성 및 삼출성 중이염으로 구분한다. 중이염은 기도유행로 인해 중이강, 즉 고막에서 유스타키오관을 거쳐 비인두 까지에 분비물이 축적되어 세균에 오염되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급성 중이염은 몇몇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데 위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소아의 경우 발생도가 높으며 그 이유는 유·소아의 유스타키오관이 성인보다 짧고 경사도가 성인의 45도보다 낮은 10도 정도로 비인두에서 중이강 안으로 세균이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스타키오관의 기능장애가 중이염의 발생을 높인다. 셋째, 세균 및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넷째, 중이점막은 특이면역반응이 작용하기 때문에 알러지, 아토피성 환자에게 중이염 발생의 빈도가 높다. 증세는 폐색감, 압박감 후 박동성 이통, 고열, 오한, 난청, 이명 등이다.

약물해설

Ceclor®는 cefaclor의 상품명으로 3세대 cephalosporin계 약물로서 중이염을 비롯하여 주로 폐렴, 기관지염, 인두염, 편도염 및 부비동염 같은 호흡기감염 치료에 사용한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가 있으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설사 및 발진 등이다.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위장막 대장염, 출혈, 경련, 신독성 등이 있다. 특히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 또는 furosemide와 같이 복용하면 신독성 및 이독성이 심해질 수 있다.

이 약물은 소아환자의 경우 안전하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이다.

Rhinathiol®은 carboxymethylcystein의 상품명으로 삼출성 및 장액성 중이염을 비롯하여 급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 부비강염 치료에 사용한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으나 소화성궤양 환자는 피하도록 한다. 항생물질과 염산트리메토크놀을 함유하는 시럽제와 혼합에서 외관(색, 탁함), 냄새 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투여하여야 한다. 이 약물은 소아환자의 경우 안전하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이다.

Actifed®는 pseudoephedrine과 triprolidine이 함유된 약물의 상품명으로 부비동염에 의한 비출혈 및 감기, 알러지성 혈관운동성 비염 완화에 사용한다. 천식, 녹내장, 고혈압,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전립선비대에 의한 배뇨곤란, 7세미만 소아 및 임신부에게 투여시 주의하여야 한다.

편집자 말대로 “약사인데 엉뚱한 일 하는 사람”이라... 향토사화에 정진하시는 원로 약사님, 역사유물을 열심히 수집하여 박물관에 기증하시는 분, 환갑이 넘어서도 한국 광고계의 대표적 카피라이터로 맹활약하시는 분, 거의 평생을 다산 정약용 연구에 몰두하신 분, 풍물놀이와 민족음악의 계승 발전에 동분서주하는 분 등등. 우리 중앙약대

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라는 단체의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것이니 그렇지 않을까? ‘평화와 통일을 찾는 사람들’ 공동대표로서 혹은 매항리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KF-15기 도입과 관련된 시민들의 분노를 전달하면서 때로는 혼자서 혹은 여러분들과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약사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시

수이다 가뭄이 겹치고 농업의 생산성 악화로 심각한 식량난이 닥쳤다. 거기다 심각한 에너지난과 경제난이 중첩되어 북녘 동포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기 시작했고,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식량난이 닥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노약자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와 임산부가 가장 난감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아프리카 난민들의 사례에서도 익히 아는 바일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가 결성된 것은 1997년 6월이다. 만 5년째가 되었다.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이 단체의 취지는 당장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고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지면 함께 살아갈 남-북 어린이의 장래 화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정작 우리의 관심이 먼 산 불 보듯하고 있을 때 국제기구나 구호단체들은 “한 세대가 소멸될 위험”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실제로 북녘 어린이의 60% 이상이 영양실조이고, 15%(약 45만명)는 아주 어려운 상태이다. 대개 나이에 비해 키가 작고,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볍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소모성으로 팔 다리가 아위고 일부는 사망하기도 하는 것이 지금 그쪽의 ‘실제 상황’이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장 그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문제이지만, 장래를 생각하면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지금 동-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화두처럼 되뇌고 있지만, 앞으로 통일

지금 북녘에선 동포애와 동료애를 기다립니다

임 종 철 (19회,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상임이사)



출신은 아니더라도 바로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을 풍요롭게 해 주는 분들이 아니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

그에 비하면 나는 사실 좀 엉뚱하기는 해도 약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어쨌든 약 하고 관련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요즈음 내가 하고 있는 사회활동 가운데가

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당연한 사회활동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나 개인을 소개하는 것보다 지금 주로 활동하는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를 잘 소개하는 것이이 소중한 지면과 이 글을 읽는 동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라 생각되니 그 활동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북녘에는 1996년 홍수에 이어 97년, 98년 연거푸 홍

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 격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 그들을 돕는 것이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는 엄청난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서로 반목하면서 “야, 북쪽 숯다리야!” 한다든지 “야, 남쪽 꺾다리야!” 한다면 지금 분단상황에서 서로 적대적인 것도 빨리 끝내야 할 일인데 그 념을 길 없는 깊은 골은 어쩔 것인가.

북녘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어린이를 돌보는 유치원 선생님들과 마을 진료소 보건의료인들이 마음고생 몸고생이 크다는 걸 알게 된 건 1999년 9월 초 평양을 방문해서였다. 당장 어떻게 해 볼 도리 없이 식량과 약품이 모자라는 안타까움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을 보면서 “만일 내가 여기 평양에 근무하는 약사였다면 어땠을까?” 자문했었다. 그래서 평양방문 이후에는 모금을 위해 동참을 호소할 때마다 “북녘 동포에게 동포애를 갖자” 라는 말과 함께 우리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북녘 보건의료인들에게 동료애를 갖자” 고 말하곤 한다.

지난 5년 동안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는 약 2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북쪽에 전달했다. 현금으로 성금을 내주신 분들, 현물(약품)로 동참해주신 분들의 힘이 이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겠다. 이 단체는 작년엔 사단법인으로 통일부에 등록하여 임기응변적인 단기적 지원으로부터 중장기적 지원으로 호흡을 크게 가져가고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모은 의약품은 북쪽 의학

과학원 산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 전달해 왔다. 이 연구소는 어린이 영양과 관련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으로 단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해 조사, 계획, 생산, 분배, 관리, 지원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1998년 11월 북쪽 보건성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사(IFRC)가 전국적으로 최초의 어린이

을 방문했다. 이런 인도적인 사업에서조차 아직도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번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취소하기를 몇 번씩은 해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한 둘이 아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힘들 때 마지막이라고 되뇌며 비행기 트랩을 오른다. 그리고 이내 반문한다. “그런데, 지금이 일을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또



이 영양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요원의 교육훈련기관이었다.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는 처음 비타민 등의 완제약품을 주로 전달해왔는데 이제는 정제 생산라인 등 생산설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른 원료약품을 공급하여 현지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쉽지 만은 않다. 지난주에도 북측과 관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경

어쩔 것인가?” 사회단체의 행동하는 일원으로서, 아니면 직업으로서의 카피라이터로서, 그도 아니면 속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시인으로서의 삶이 북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항생제 한 캡슐에 모두 녹아 있음을 믿으며 다시 힘을 내야겠다.

이 참에 이 지면을 빌어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진지하게 호소하고 싶다.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

조영만 (3회, LA지부)

임자체(6,189m), 카라파르타(5,545m), 그리고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오르기 위해 히말라야산을 향해 9월 12일 밤 로스 안젤레스를 떠났다.

홍콩을 거쳐 카트만두까지 오랜 비행 후 도착하니 김홍성(시인)씨 덕 “백은산사”에 카트만두 한인산악회장이 준비한 환영행사가 마련되어 밤이 늦도록 नेपाल 전통악기 연주와 춤으로 이국정취에 푹 빠져 즐기며 동족의 아니 산악인의 우정으로 피곤을 잊게 하였다.

다음날 작은 잠자리 같은 비행기가 흰눈을 이고있는 연봉들 사이 계곡을 따라 돌며 30여 분만에 손바닥만한 작은 활주로에 곡예하듯 루크타(2,800m)에 도착하였다.

가슴 설레는 첫 히말라야 산행이 루크타에서 팍딩까지로 등산이 아니고 200m를 내려가는 하산이어서 먼 비행으로 지친몸으로도 즐거운 첫 산행이었다.

팍딩(2,652m)→남체바잘(3,440m)

6시에 기상과 동시에 간단히 요기를 하고 등산을 시작했다. 3시간여 울창한 삼림속을 오르니 천연 요새 같은 곳에 사가르마타(네팔인들은 에베레스트를 이름) 국립공원 대표소가 가로막고 구식 인도 장총을 소지

한 3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 1인당 입산료 650루피(\$9)를 지불하고 에베레스트 관문을 통과하니 완전히 속세를 벗어나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3,000m가 넘는 고도로 모든 대원이 고소증으로 괴로운 산행이었으나 5시쯤 히말라야산속에서 제일 큰 마을 남체바잘에 도착하였다. 태고와 현대가 공존하는 마을이라 할까. 태양열 전지판을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 E-mail을 외부세계로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남체바잘(3,435m)→텡보체(3,867m)

고소 적응을 위해 이곳 남체바잘에서 하루 정도 쉬는게 정도이지만 바쁜 일정에 쫓기는 우리에게겐 견물생심, 휴식없는 강행군이 있을 뿐. 극한에 도전하는 자신이 먼저 자신과의 투쟁을 이겨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싶었다. 만년설이 뒤덮힌 아마다불람(6,856m)을 오른쪽에 끼고 1시간여 오르니 작은 차 기념품 가게를 만나게 되었고 안에는 “77에베레스트 한국등반대” 포스터가 걸려 있어 모두가 반가워 했다. 이 집의 주인 앙프르바 셸파가 그 당시 박상열 대원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

로 구해 8,600고도에서부터 부촉해 하산에 성공해 한국 대원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집으로 우리 한인과는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래서 극진한 대접을 아무 대가없이 베풀려고 한다. 대접에 대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아쉬운 인정을 뒤로 남기고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 저녁 늦게 히말라야 산속에서 제일 큰 곱파(절)가 있는 텡보체에 도착하였다.

텡보체(3,867m)→딩보체(4,328m)

맑게 개인 아침에 에베레스트, 로체, 아마다블람, 그리고 캅테가 봉들에 둘러 쌓이고 보니 우리 모습이 너무나 미미해 도전한다고 거들먹거린 짓들이 너무나 창피해 졌다.

끝날줄 모르는 듯 힘든 산행이 계속되니 이제는 감격이나 즐거움 보다는 고도 적응이 안되서 오는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 한국음식마저도 도움이 안되고, 숨은 가빠지고, 머리는 아프며, 밤에는 잠을 못 이루니 얼마나 더 견딜지, 누가 먼저 쓰러질지 걱정하게 된다. 야크 똥을 짓이겨 빈 대떡크기로 해서 담, 벽, 넓은 바위틈만 있으면 붙여 말리는 풍경 무척 이국적이면서도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을 현장 답습하는 느낌이었다. 길 안내판이 없는 히말라야 산속에서 유일하게 큰 바위벽에 페인트로 쓴 방향지시가 페리체(에베레스트산), 그리고 덩보체(임자체봉)를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다. 2일을 더 산행해서 임자체봉을 갔다 다시 이곳까지 내려와서 에베레스트산 베이스캠프, 그리고 카라팔타봉을 가야한다 생각하니 지금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대원중 5-6명 이외는 4,000m 이상 고도가 처음이므로 고소증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안되었고,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닥칠지 몰랐기 때문에 힘이 극에 달한듯해 보여 무척 안쓰럽다.

딩보체에 도착하니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모든게 귀찮고 음식도 보기 싫고 잠도

오지 않는다.

딩보체(4,530m)-임자체 베이스캠프(5,242m)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처음부터 대원들간에 거리가 벌어져 뒤쳐진 대원이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추쿵(4,730m)에 도착하니 로체(8,507m), 그리고 로체살(8,393m)이 딱 가로막고 그 옆으로 낮게 임자체봉이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고 작아보이는 임자체봉 오르기를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가 생각하니 자신도 왜소해지는 느낌이다. 모래, 자갈뿐인 계곡을 건너 능선에 오르니 눈 아래로 펼쳐진 시야가 온통 빙하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니 입눌릴 힘이 없는 오직 무거운 다리를 옮기는데 온 정력을 쏟으려는 상태들인 것 같다.

드디어 좁고 눈오는 초저녁, 아무도 없는 임자체 베이스캠프에 도착하니 셸파 포터들이 벌써 식당천막이며 잠잘 천막 3개를 쳐 놓고 기다린다. 뒤쳐진 여자 대원이 1시간 후에 양쪽 부촉을 받으며 끌려오다시피 하여 도착, 어쨌든 전대원이 모였다. 일부 대원은 천막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고 나머지 대원은 협력하여 태극기, 성조기, 네팔기, 산악회기, 협찬사기 그리고 네팔 풍습대로 오색기를 달고 그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라마제를 현지에서 합류한 영봉스님 주재로 지내고, 아울러 몇일 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근처에서 동시한 다른 한국팀 여성대원의 천도제도 곁들여 마쳤다. 식욕이 전혀 없어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자정에 출발할 임자체 공격팀의 나를 포함 5명은 준비가 바빠졌다. 장비 등을 가까스로 챙기고 지친 몸을 슬리핑 백에 묻고 잠을 자려고 노력하나 헛수고 11시 30분에 일어나 7명의 남아 있을 대원들의 뜨거운 격려와 포옹을 받으며 셸파 2명과 3명의 포터와 함께 헤드캠프에 의지하여 눈오는 속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원래 계획은 하이캠프(5,600m)에서 하루 쉬면서 고소적응을 하고 완만한 동북루

바쁜 일정에 쫓기는 우리에게겐 견물생심 휴식없는 강행군이 있을 뿐. 극한에 도전하는 자신이 먼저 자신과의 투쟁을 이겨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싶었다. 만년설이 뒤덮힌 아마다블람(6,856m)을 오른쪽에 끼고 1시간여 오르니 작은 차 기념품 가게를 만나게 되었고 안에는 "77에베레스트 한국등반대" 포스터가 걸려 있어 모두가 반가워 했다.

트로 정상으로 오르려던 것을 바꾸어 변경, 하루에 북서 루트로 직벽으로 오르기로 바꾸었으니 1,000m 고도를 하루에 하게 되었으니 너무벅차 걱정스럽다. 그간 고소증 운운하며 힘들어 하던 것이 지금 이곳에 오고 보니 모두 사치로 여겨질 만한 것이라고 나 할까. 거의 직벽을 오르는 것 같은 사투 끝에 3시간 만에 하이캠프에 도착했다. 그도 잠시 포터가 준비한 누른밥과 송능을 몇 모금 마시고 계속 오르니 정말 한계에 부딪친 듯 하다. 적막과 어둠 속에서 눈을 맞으며 정상을 향한 집념의 대원들 거친 숨소리가 무거운 쇠뿔치를 발목에 단 듯 힘든 다리의 움직임에 대변하듯 여겨졌다. 이 지점에서 산소는 평지의 50%정도, 진정 고소증의 괴로움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휴식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대원들이 원망스럽다. 하이캠프를 출발하여 2시간 정도 올랐을 때 한 대원이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나역시 무기력해져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대원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한계에 다달은 느낌이었다. 2시간 정도 진행을 늦추어 나의 체력에 맞추어 오르면 좋겠건만 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대장의 결정은 300m 정상을 남겨놓고 내려가란다. 나는 포터 2명과 하산하기 시작하였다. 내려오기도 여간 힘든게 아니다. 1시간여 내려오니 고소증에서 얼마간 벗어났는지 그렇게도 안 오던 잠이 어찌나 쏟아지는 정신을 차릴 수 없다. 하이캠프에 도달했을 때는 거의 의식이 없는 반수면 상태. 천막안에 들어가자 그냥 수면에 빠져버렸다. 그렇게 한숨 자고 나니 정신이 들어 내려가기 시작하여 8시 경에 베이스캠프에 도착하여 다시 수면에 빠졌다. 깨어나니 11시가 되었다. 공격 대원으로부터는 1시에 무사히 정상에 도착하였다고 연락이 왔다.

추궁(4,730m)-코락셀(5,288m)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와 카라팔다봉을 목표로 힘든 몸을 추스려 아침 일찍 출발하



였다. 비교적 오전 중에는 내려가는 곳이 많아 계획대로 산행을 하여 코락셀 언덕에 오르니 에베레스트 산과 로체산 사이로 흐르는 콤부빙하가 멀리 보이고 언덕 아래로 3채의 집이 보인다. 이제는 시작부터 평지에서도 힘이 들고 숨이차며 기운이 없어 엉킨다. 계속 움직여 3시간 만에 오색기가 바위에 엉겨있는 카라파르타 정상에 섰다. 에베레스트 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봉우리로 수시로 변하는 기후 때문에 바람과 눈이 오기 시작하여 오래 있지 못하고 30여분만에 하산하여서 입자체, 에베레스트 캠프, 그리고 카라파르타봉 모두를 오르는 패거리를 미주 산악회원 12명이 이루게 되었음을 자축하였다. 많은 비로 인해 주위의 절벽이 온통 실같은 폭포벽으로 둘러쌓인 계곡을 따라 내려오며 신선도 아니 창조주의 동양화의 극치를 맛보고 즐길수 있는 기회를 만끽할 수 있었음은 큰 행운이었다.

하산길은 만족한 성취감에 도취되어 얼마나 열심히 걸었는지 하루를 단축할 수 있었고, 그래서 카트만두의 고적답사를 턴으로 할 수 있는 여유까지 갖고 대역사를 끝낼 수 있었다.

정말 한계에 부딪친 듯 하다. 적막과 어둠 속에서 눈을 맞으며 정상을 향한 집념의 대원 거친 숨소리가 무거운 쇠뿔치를 발목에 단 듯 힘든 다리의 움직임을 대변하듯 여겨지며 기어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이 지점에서 산소는 평지의 50%정도, 진정 고소증의 괴로움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휴식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대원들이 원망스럽다.

흑중회 모임(24차)



1. 6월 22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2. 월드컵 8강전이 열리는 날
 - 강혜옥(20회, 고신대 복음병원) 동문의 약제부장 승진을 축하
 - 월드컵 8강 진출과 강부장 승진 축하를 위해 해운대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3. 김일영(12회, 마산삼성병원)동문 같이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회원 결정

인사



- 박기배(20회) 이사 7월 4일 국제로타리 3690 지구 새고양시 로타리 클럽 회장 취임

결혼

- 문재빈(13회) 이사 5월 25일 자녀 결혼
- 김동열(6회) 이사 6월 1일 자녀 결혼
- 노석준(12회) 이사 6월 8일 자녀 결혼
- 권혁구(9회) 부회장 6월 9일 자녀 결혼
- 김영기(6회) 동문 6월 15일 자녀 결혼
- 우준하(12회) 이사 6월 16일 자녀 결혼
- 김일권(12회) 이사 6월 22일 자녀 결혼
- 김미자(11회) 이사 7월 6일 자녀 결혼
- 장영수(7회) 이사 7월 27일 자녀 결혼

행사

- 송파구 약사회 : 5월 16일 자선다과회(회장 진희 역(26회))
- 안산지부 정기총회 : 5월 23일 오후 10시 개최
 - 장 소: 안산시 참치마을
 - 참석자: 유영후 회장, 최영욱 학장, 이범도 안산지부회장의 회원 30여명
 - 안 건: 약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5천만원을 약정했다.



- 구로·금천지부 : 5월 25일 오후 8시 30분 개최
 - 장 소: 초원가든
 - 참석자: 유영후 회장, 최영욱 학장, 이호섭 회장의 30여명
 - 안 건: 약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 성동구 약사회 : 5월 25일 자선다과회(회장 김영식(23회))
- 서대문구 약사회 : 6월 4일 자선다과회(회장 정명진(18회))
- 성북구 약사회 : 7월 11일 자선다과회(회장 조찬휘(15회))

건물신축

- 이규진(9회) 부회장 : 5월 25일 새건물 입주식

서청원 동창회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 당선



서청원 회장은 지난 1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에서 유효투표 1만 729표 가운데 3천 603표(득표율 33.6%)를 얻어 17명의 경선후보자 가운데 최다 득표 1위를 차

지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서회장은 6·3 세대 출신으로 서울에선 보기드문 5선 의원으로 뛰어난 정치감각과 협상능력,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 등으로 당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의리형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로서 우리 중앙대학교는 모교 개교 84주년만에, 동창회 창립 50주년만에 이 나라 공당 제1당의 당총재를, 그것도 임명이 아닌 경선에 의해 탄생시키는 쾌거를 일궈냈는데, 이는 개인의 역량·노력과 함께 마침내 우리 중앙의 저력을 나타낸 의미있는 일로서 앞으로 제2, 제3의 서청원 동문이 나올 것을 중앙인들은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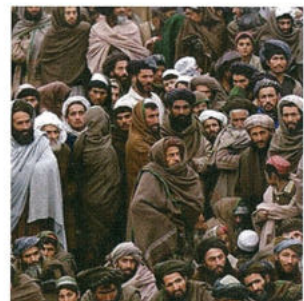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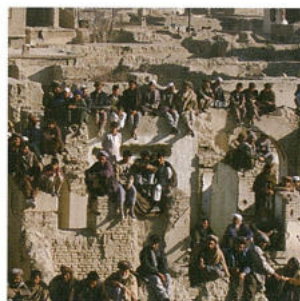


이장욱 동문 자랑스런 폴리처상 수상

속보상, 기획사진상 2개부문 휩쓸어

뉴욕타임즈에서 사진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장욱 동문(건축공학과 86졸)이 저널리즘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폴리처상 2개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지난 94년 뉴욕타임즈 사진부에 입사한 이 동문은 9·11테러 사건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WTC)의 현장 사진으로 속보 사진상을, 가난과 전쟁에 지친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상으로 기획 사진상을 받아 보도사진 분야의 2개 상을 모두 차지했다.

이장욱 동문의 폴리처상 수상은 한국인 기자로는 두번째 쾌거이며 중앙인의 기상을 전 세계에 떨친 계기가 되었다.



2018 창학 100주년 준비

중앙대학교 개교 1백주년이 되는 2018년의 중앙대학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세계속에서 어떤 위치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을까? 지금 모교에서는 1백주년 시점을 대비한 중앙대학교의 청사진을 내걸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모교 장단기 발전계획의 명칭인 'Dragon 2018'의 내용은 2018년까지 세계 100대 명문대학 진입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으며 우선 단기 목표로 2005년까지 국내 5대 명문사학으로 진입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교육체계 혁신을 통한 의와 참의 중앙인 양성, 연구인프라 강화를 통한 세계적 중앙팀 육성, 시설확충·현대화를 통한 최적의 중앙터 조성을 기본정책으로 세우고 있으며 시대에 걸 맞는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vision 21 등 제반



발전계획의 실천과 승양가속의 대학발전 의지 수봉을 담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의 본부중심 행정체계에서 단과대학중심의 행정체제로, 전대학 균형발전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발전으로, 공급자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인식하고, 인식을 토대로 방향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Dragon 2018'의 실현은 법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등 전 중앙인이 참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세계속의 중앙으로 우뚝 서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식 공연



총지휘 손진책 모교교수, 음악감독 모교 박범훈 부총장(음악 24회), 총 안무 국수호 교수(연극영화 26회)를 비롯해 중앙대 국악대 국악관현악단 40명, 음대 오케스트라 40명, 국악대 조각북 교수 18명, 예술대 열림패 '반고' 45명 등이 출연하여 동서양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난 무대를 연출할 수 있는 작품을 작곡하여 선보였다.

또한 국수호 교수가 연출하는 제2부 개막식 공연도 모교 무용학과 출신들로 구성된 디딤무용단, 재학생 등이 참여하여 6만 5천여 관중과 전세계 60억 인구에게 방영되는 TV에 중앙대학교의 네임 수퍼가 됨으로서 한국속의 중앙대학교가 아닌 세계속의 중앙대학교로 태어나는 홍보효과를 거둔 공연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5월 20일~7월 20일 현재)

회장단 회비(연24만원)

- ▷ 유영후(7회) ...240,000 ▷ 정재일(7회) ...240,000
- ▷ 이기안(7회) ...240,000 ▷ 박숙자(7회) ...240,000
- ▷ 임상목(8회) ...240,000 ▷ 조의환(8회) ...240,000
- ▷ 김연희(8회) ...240,000 ▷ 오희영(9회) ...240,000
- ▷ 이규진(9회) ...240,000 ▷ 권혁구(9회) ...240,000

이사회비(연12만원)

- 1회 : 홍흥만
- 2회 : 고두흔
- 3회 : 박중순, 배영식, 성열호
- 4회 : 김기호, 우정희, 구분원
- 5회 : 김중무, 김채윤
- 6회 : 김동열
- 7회 : 강승안, 유윤자, 신완균, 박양시, 박명신, 임종홍,
- 8회 : 김홍자, 배영애
- 9회 : 이근배
- 10회 : 서정목,
- 11회 : 민대식, 박신규, 김미자
- 12회 : 우준하, 김 구, 이관하
- 14회 : 안해봉, 김명웅
- 16회 : 김광식, 최창원
- 18회 : 이원영, 강응모
- 19회 : 옥태석
- 20회 : 유영내, 박기배
- 21회 : 김두수
- 22회 : 고부환
- 23회 : 정덕기
- 25회 : 조병일
- 28회 : 양덕숙

일반회비(연2만원)

- 1회 : 문영순, 최봉수, 박학진
- 2회 : 한성순, 황재수, 심양균, 유성관, 김홍식, 김좌상, 김선동, 김성빈
- 3회 : 현영철, 김기홍, 손석우, 배재만, 유광열, 이병균, 심한섭, 임승문
- 4회 : 최중화, 오제호, 신응섭, 정복영, 서동수, 정용운, 송만영, 김태형, 윤여빈, 손호동, 오성수, 이영아, 김영철, 김철길, 홍범표, 이석구, 장석일, 김희관
- 5회 : 손규산, 강인식, 조주행, 이부영, 이남수, 오금교,

- 임맹순, 문익수, 조복희, 민홍식, 문세주, 김원전, 오상오
- 6회 : 유석현, 유복상, 이풍기, 김영빈, 장지용, 임철부, 조종래, 박희숙, 이종건, 송주창, 유승균, 이태호, 이성호, 오세민, 양승훈, 정병중, 이종수, 신의명, 전희태, 양현홍, 정태명, 박병서
- 7회 : 권장원, 박옥균, 이주학, 박주현, 김경동, 최성립, 한영자, 성 용, 이태윤, 표병훈, 김상섭, 문춘일, 노응권, 성창언, 유종현, 김원지, 이정자, 정연홍
- 8회 : 정재영, 엄규중, 오창준, 차인봉, 이관일, 김진우, 이숙자, 정천우, 박재웅, 서진일, 서동섭, 이영복, 안덕기, 박희철, 김기웅, 유재우, 최재욱, 김재학, 강윤구, 정영일, 이태하, 박수일, 허광일, 김희선
- 9회 : 한정희, 이규형, 김정수, 장상현, 성일남, 김영부, 이명자, 최영근, 이병호, 주신자, 이종원, 천진호, 김태선, 조경자, 박정환, 현정자, 손광자, 임승진, 권오성, 신우식, 이수자, 정상오
- 10회 : 이종석, 이원일, 전광석, 강임창, 하광호,
- 11회 : 안홍신, 이기호, 고승하, 남복석, 차영진, 김정길, 구자역, 이의공, 박희경, 김승업, 송상부, 이교문, 이남진, 양계창, 강일성
- 12회 : 최창목, 장석훈, 정기순, 홍정덕, 김정박, 김일영, 정재균, 박홍식, 신계철, 이만오, 이광호, 홍근수, 김초성, 김대건, 민명임, 김신우
- 13회 : 김인호, 박영준, 이규선, 왕문화, 안상희, 유희동, 강태주, 이종각, 전인식, 김진욱, 김신미, 임재용, 김태종, 서효석, 임동욱, 정태홍, 안영도, 김성갑, 박학용, 박인재, 이삼우, 백수현, 설은규, 김선영, 유용상, 고순진
- 14회 : 전영표, 김진행, 김영일, 서정애, 김명수, 양일진, 이병조, 홍성철, 유관희, 정태덕, 현수홍, 지성배, 구종모, 김원순, 우영철
- 15회 : 박흥기, 박영경, 이경숙, 이명숙, 김영추, 이창길, 노정래, 전홍근, 당현철, 박명배, 노명남, 조영직, 정육주, 나인준, 이재원
- 16회 : 권희문, 윤기홍, 강명채, 김 현, 김제성, 한인수, 진완철, 윤홍엽, 노상섭, 박종애, 박주영, 백승복, 고승인, 송정복, 박상환, 홍순경, 이은주, 강경식, 조연심, 이상현
- 17회 : 김상욱, 김완희, 백애숙, 김인형, 최해광, 김기중, 김현화, 정갑진, 이윤식
- 18회 : 김종기, 박인환, 이복숙, 한창일, 이재익, 임태영, 김윤순, 김애연, 남애숙

- 19회 : 안병호, 유제영, 남윤수, 김행소, 채희태, 권영훈, 장호성, 원주희, 권광일, 송택용, 정무섭, 이남석, 정동훈, 박운홍, 박광우, 성귀현, 김성연
- 20회 : 안연준, 서기수, 김형춘, 정택일, 한경우, 윤춘수, 우영각, 방재환, 강혜옥, 박문수, 방금숙, 정병희, 최인걸
- 21회 : 전상조, 유승율, 최병철, 김찬의, 안병현, 어경남, 이진경, 신길득, 김성만, 정옥희, 박 권
- 22회 : 최영호, 박동우, 이규홍, 염규철, 천경호, 이순명, 이명수, 이현희, 장용운, 오기환, 이정석, 김중궁, 이명옥, 이영옥, 윤영식, 최영석, 이상순, 구재호, 박미란, 강희윤, 홍옥경
- 23회 : 최경선, 이승하, 이건주, 김수중, 김진섭, 박희용, 신영돈
- 24회 : 조중연, 홍용기, 장순경, 윤원철, 조진성, 최금순, 홍순철, 김정일, 강창주, 한성엽, 최명배, 황규진, 심영철, 최영욱, 권영직
- 25회 : 배준호, 이기봉, 김재천, 백남공, 신수경, 이완희, 김춘규, 김영식, 송태수, 임흥기, 홍성우, 김희섭, 정태영, 전경숙, 권세형
- 26회 : 조인구, 양승훈, 김유현, 정교현, 김기형, 윤용혁, 조필연, 조병호, 최종배, 김영후, 신동현
- 27회 : 고영주, 한봉길, 이병일, 박상규, 정희숙, 임재무, 이준술, 권오승, 김덕진, 한승희, 현기원, 이선자, 유재수
- 28회 : 이병천, 조상오, 강인식, 남궁용, 김광성, 오용식, 지명구, 우희동, 양창국, 박광규, 정현숙
- 29회 : 김선일, 백승권, 전 옥, 이애진, 이상원, 서경원, 김광석, 이광수, 이영주, 박종국, 이경근, 이정란, 정극성, 김영자, 양승모, 유인석
- 30회 : 김명중, 김은주, 조덕희, 고은숙, 김선주, 홍영미, 고영수, 황유세, 최병원, 어은주, 최현희, 윤기숙, 강승억, 강인경, 김형수, 조민숙, 김선겸, 조순연, 김연하, 강현주, 박복자
- 31회 : 최윤실, 한경수, 유영숙, 윤선진, 김미숙, 강상민, 이미경, 이경옥, 김현주, 최민숙, 정문숙, 김미혜, 유인숙, 박희선, 서경찬, 김신령
- 32회 : 이명선, 채영주, 전재웅, 이경우, 조양연, 장인순, 김정희, 장재현, 손수정, 도곤희, 박병구, 배경희, 육혜경, (최국환, 김미정35회), 강수미, 이현희, 김미성, 박혜란, 윤준호
- 33회 : 최현정, 유정순, 윤종배, 김성진, 김동현, 박상수, 우선찬, 백재웅, 신명화, 소정우, 고은주, 전병국, 이정수, 임범수, 문숙현, 임희원, 권오규
- 34회 : 김종국, 안인숙, 김진아, 김정섭, 김영화, 박상권, 민성철, 이은석, 백희숙, 김현숙, 노영화, 이영은, 이영구, 박성민, 박연규, 김의동, 장정인

- 35회 : 오창현, 이경선, 김명희, 정민식, 석윤진, 정해연, 이민우, 최문실, 김충환, 봉은희, 송지숙, 김희성, 곽정근
- 36회 : 방극상, 임성호, 정순철, 김창연, 강경애, 강수경, 김원철, 최희식, 김현미, 유복진, 정현희, 김영준, 류진오, 홍종례, 김유한
- 37회 : 오상희, 김영중, 박정면, 김학선, 조웅상, 방준석, 정혜경, 이은경, 안백희
- 38회 : 이현숙, 김인성, 진정주, 곽분임, 박양혜, 최우진, 현수윤, 고명화
- 39회 : 김해중, 김민정, 김귀일, 권 옥, 권연정, 김명철, 이정수, 박앵란, 안미정
- 40회 : 최명진, 마은호, 김희정, 김정숙, 이창모,
- 41회 : 조환제, 최명수, 신유미, 최진희, 홍현한, 김애라, 신옥숙
- 42회 : 허민찬, 최재희, 윤연정, 김태환, 편석화, 임성욱, 홍경남, 이창경
- 43회 : 이경은, 강규태, 김범경, 김영옥, 강전욱, 전인주, 나상규
- 44회 : 조희정, 김민수, 김수길, 이범호
- 45회 : 김민경, 오원식

미주동문 일반회비

송정용(3회) 100불, 우석명(8회) 100불,
우중수(12회) 50불, 김경숙(14회) 100불

2002년 신입회원 회비납부자(신입회비 3만원)

김경민, 박성만, 이재성, 허 율, 김성규, 박창권, 손지환, 백운경, 권혁덕, 김겸례, 박선정, 나은신, 남효정, 김세연, 송하경, 신미순, 박지연, 박수진, 조동환, 이영민, 황혜진, 지정숙, 김하나, 김혜림, 김희규, 남궁지선, 김윤경, 김은수, 김정배, 김지연, 김수옥, 김수형, 김순옥, 김영옥, 김용현, 권 희, 김미연, 김선옥, 강 훈, 윤세나, 신현아, 안선주, 염승환, 배서원, 서현정, 박수아, 박수정, 박정연, 박정주, 박준홍, 노지혜, 목혜숙, 문유진, 박미자, 임병연, 임옥선, 임은주, 이아롱, 이영주, 이운정, 이정민, 이지윤, 윤정아, 이보영, 오승희, 오우진, 오은혜, 원현식, 윤미희, 하호경, 최소연, 최종문, 최태식, 조진옥, 조희선, 진은경, 차미영, 정의만, 정재신, 정하연, 조미애, 권용희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약동문회

연간회비

- 회 :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藥師산실의 center가 되어야 한다는 동문들의 염원이 모여 약학대학 발전기금 조성위원회가 출범했다. 교수, 동문회임원이 앞장서서 헌신을 다짐함으로써 온 동문이 참여한다면 기필코 세계속의 약학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徐

동문명부가 발송되고 일반회비를 납부한 동문의 수가 600명을 넘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반갑고 또한 고맙습니다. 동문여러분!

明

드디어 보건 복지부에서 시민포상금제도를 시행하려 한다. 가까스로 반 상회를 통해 배부된 시민 포상제 안내문 발송하는 비극을 김명섭, 김홍 신, 김성순 의원 등의 제기로 신임 장관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내 일단 유보되는 제스처로 분위기를 잡아 갔다 한다. 관료들의 탁상행정식 발상으로 애꿎은 정치만 무성히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 부지런만 떨면 건당 최하 20만원하는 포상금 받아 생활이나 용 돈을 해결할 신종직업이나 조직이 등장하게 되었다. 분노가 넘쳐 슬퍼서 너무 슬퍼서 이제는 눈물도 흐르지 않는다. 하루 하루가 개국가의 약사는 주눅들어 간다. 오늘도.....

庸

암, 그렇고 말고, 고맙고 또한 필요하지. 힘없는 나라 스스로 지키기가 구호처럼 쉬운일인가, 참으로 고마우이.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절규하는 만큼만 잘못을 인정하는 팩스아메리카나의 용병들과 그 우렁찬 탱크의 궤도 굴러가는 소리. 이전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었네, "에므왕은 가라"고.

洙

시청으로, 잠실로, 대학로로... 전국을 하나로 만든 월드컵 축구 열기가 생면 부지의 사람과 만나도 서로 화이팅을 외치고 하이하이브를 하며 열사 안고 흥겨워한 지난 한달 영원히 잊지 못할 한국 축구의 한 획을 긋듯이 우리 보건인 의료단체도 하나되는 마음으로 뭉친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솟을 수 있을 텐데... 중대약대 발전기금 조성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짹짹 짹짹!! 중앙대 약대 화이팅!!!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 서 국 진(13회)
- 김 기 명(18회)
- 박 희 용(23회)
-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구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생명과학 벤처기업
(주)씨트리 제약사업부
Chem Tech Research In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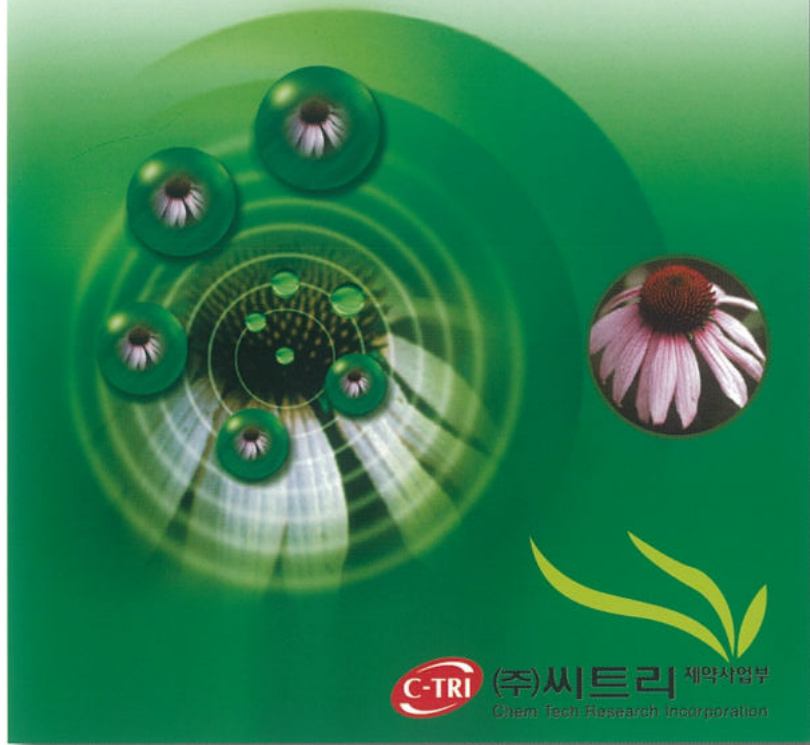
일반의약품

12정

생약성분의 항감염제

이뮤넥스 정

(에키나시아엑스)



생약성분의 항감염제

이뮤넥스 정/산/액

IMMUNEX

면역지킴이 —— **이뮤넥스**

-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직장인
- 면역력이 약해 감기에 걸리거나 잘 낫지 않는 분
-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어린이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원하시는 분
- 호흡기 질환자
-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약물에 지친 분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